



기억의 종말

미로슬라브 볼프 지음 | 홍종락 옮김 | IVP

미로슬라프 볼프의 책에 대해서 서평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책 <기억의 종말>을 포함하여 그의 책은 미사여구의 집합체이다. 그의 깊이 있는 생각들이 한 문장으로 엮이는 것을 자주 본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문득문득 탄성을 자아내게 된다. 책을 읽다 갑자기 한 문장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시를 만들고 명구를 만들고 표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 문장들을 다시 읽고, 메모하며 책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은 두 배가 되기도 하고, 세 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깨달음과 감동 역시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된다. 그런데 그의 책을 몇 장의 서평으로 정리해야 한다니 문제다. 행여 그의 표현들을 옮기지 못하고, 내용만을 가지고 논하다가 그의 책을 가난하게 만들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기억의 종말>,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악행의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나의 표현을 빌리면 지당하신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지당하신 이야기'가 볼프의 손에 잡히면 달라진다. 그는 '기억'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든다. 심

리학, 사회학, 문학, 철학의 관문을 지나 신학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깊은 사색이 더해진다. 이렇게 당연한 스토리에 당연한 결말이 깊이와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거기에 그의 미사여구가 더해지면 이 신학적인 책이 흥미진진한 추리소설로 변한다. 과연 그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는 궁금증이 책장을 넘기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 정도이다.

책의 시작은 그의 경험으로 시작한다. 1984년, 아직 공산주의 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군대를 가게 된 이야기이다. 그곳에서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목사의 아들이었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체제 전복적 학문인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유학했고, 또 신학을 공부한 미국인 아내가 있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독일에서 마르크스 이론을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어쩌면 군대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일 수 있고, 동시에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전 부대원이 동원되었고, 그는 강도 높게 반역의 심문을 받았다. 이 장기간의 군대 경험은 그에게 비극이었고 악몽이었다. 특히 그를 심문했던 G 대위는 비극의 상징이었다. 책은 이 개인적인 사건에서 실마리를 풀어 나갈 뿐만 아니라 과정과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해야 한다

결말까지 이어간다. 결국 그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 책의 스토리를, 개인사를 끌어들이고 오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으로 섞으며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지당하여 객관적이고 교훈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주제적으로 변하여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다.

먼저 볼프는 기억이 정당한가를 묻는다. 기억은 객관적일 수 없다. 기억하는 주체가 개입이 된다. 더군다나 그 기억이 악행에 대한 기억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며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악행은 기억을 통해 더욱 악해진다. 이렇게 악이 이어질 때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피해자가 어느덧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가해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 볼프는 '악이 온전히 이기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필요하다. 악행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되갚을 때 두 번째 승리가 이루어진다'고 표현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볼프는 먼저 기억의 도덕성을 이야기한다. 과거에 벌어진 일을 진실되게 기억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거짓기억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는 거짓이지만 본인은 옳다고 믿는 것이다. 거짓의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악행을 둘러싼 기억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진실의 층들로 이어진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면 진실이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실에서 출발해야 할 정의도 함께 실종된다. 그래서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에 기반된 바른 기억이 전제된다. 이 과정을 볼프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진실 주장의 문과 진실의 방 사이에는 개연성과 관점이라는 복도가 있고, 때로 그것은 미로와 같다. 그 문으로 들어서서 미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진실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하다.' (87)

'기억의 도덕성'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SNS 시대에 수많은 기억들이 전시되고 주장되고 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들이 이제는 공개되어 검증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과거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본다. 한 때의 치기로 흠어졌어야 할 이야기가 공개적인 기억이 될 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악행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탄압'이라고 한다. 피해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선동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은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한 사건에 다양한 진실이 제시되며 모두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로의 진실이 부딪히고, 호도되면서 진실은 실종되고, 더불어 정의도 사라지고 만다. 어디 정치권이겠는가? SNS를 통해 양산되는 주장들은 진실은 내버리고 거짓에 거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질러진 악행을 밝혀야 하고,
그 본질에 동의해야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음을
인정해야 한다.

것을 더하여 탑을 쌓아 버리고 만다. 정점에 이르러서는 종편 뉴스에서 주장이 되고 목소리 큰 누군가에 의해서 진실이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진실 찾기에 지쳐서 외면하고 다양한 기억이 있었음으로 결론 짓게 된다.

볼프는 이 문제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늘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주장이 진실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특히나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진실하게 기억하는 것을 '도적적 의무'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논의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의 총합일 수도 있다. 그러한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비경험적인 기억도 우리를 만들어 간다. '기억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출애굽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137) 이렇게 보았을 때 악행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규정하게 된다. 그 상처만큼 기억은 우리 깊은 곳에 각인된다. 이 악행의 기억이 우리를 규정할 때 우리는 악으로 자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바른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악행의 기억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며 볼프는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부분은 이집트가 행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기억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 내가 당한 악행을 또 다른 약자에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악행에 대한 기억으로 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으로 나를 만들라고 한다. 이 감격으로 우리에게 나그네된 자들을 합당하게 대하라는 것이 그의 권고이다.

그는 결론 부분에서 '망각'을 권한다. 화해의 과정을 거쳐서 악행을 망각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망각이 우리를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신학적으로 대답한다. '우리가 더 할 나위 없이 우리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타인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새긴 것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다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자신에게서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중간)... 우리의 기억, 경험, 소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존재를 규정하기보다는 꾸며 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

이라면, 우리 정체성을 사로잡는 과거의 지배력이 깨졌다는 의미이다.’ (272)

이 책의 중요한 가르침은 결국 화해이다. 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이유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가해자와 화해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악행의 기억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나는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원수 사랑”을 지지하는 논증을 펼치지 않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선포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의심을 놓지 못한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밀양>를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웠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범인을 만난 순간 그녀는 무너졌다.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맞닥뜨리니 그게 아닌 것이다. 결국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던 한 남자를 통해서이다. 남자가 가슴에 들고 있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울던 주인공의 마지막 장면이 이를 보여 준다. 이게 인간이 아닐까? 불프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에 불프는 종말론을 끌고 온다. 그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한 형제로서 한 식탁에 둘러앉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우리는 이미 화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세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상호 포용’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악행을 잊으라고 한다. 망각이다.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 우리는 저질러진 악행을 밝혀야 하고, 그 본질에 동의해야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좋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완

전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종말론적 이행을 완성하신 후에야 그와 나는 악행의 기억을 망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수호자요 정의의 종이었던 기억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246f)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그리고 말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도전이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온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는 그렇게 온전할 수 없으니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새겨 왔다. 그런데 종말론을 끌고 오는 불프의 온전함 앞에 무너졌다. 너무 용 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라, 그리하면 그날에 그를 형제로 만나 한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그때에 기억은 온전함을 입어 무기억이 되고, 망각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해야 한다.’ (280)



글 |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로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대표이자 기윤실 본부장, 본지 편집위원이다. 저서로는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등이 있다.